

2019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 디렉토리

활동기관: De Appel
제 출 자: 박가희

번호	구분	내용
1	기관 및 단체	The Black Archives
2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3		BAK(Basis voor Actuele Kunst 박, 바시스 포르악틸러 쿤스트)
4		Framer Framed
5		Van Abbemuseum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The Black Archives		
	유형	비영리기관	장르	사각문화 문학 사회과학 등
	운영주체	New Urban Collective		
	소재지	암스테르담 Zeeburgerdijk 19b, SK 1093 Amsterdam	설립연도	2015
	기관현황	설립자, 코디네이터, 다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		
	홈페이지	http://www.theblackarchives.nl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Jessica de Abreu (국제교류 담당자가 따로 없습니다 설립자의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연락처/이메일	theblackarchivesnl@gmail.com jessica_de_abreu@hotmail.com
	<p>The Black Archives는 비영리 단체인 New Urban Collective가 운영하는 공간이자 플랫폼이다. New Urban Collective의 전신은 2015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흑인학생연합이 운영했던 New Urban Cafe이며, 학생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Jessica de Abreu와 Mitchell Esajas, 그리고 탈식민주의와 노예 시장과 인종주의 및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쳤던 암스테르담 대학의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Waldo Heilbron의 서적을 기증하면서 New Urban Cafe의 활동에 합류한 Miguel Heilbron과 Thiemo Heilbron이 현재의 The Black Archives를 이루기까지 토대를 마련했다. 당시 New Urban Cafe의 활동은 크게 2,000여 권의 기증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과 이와 함께 수리남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문화, 역사, 문학 등을 배우고 논의하는 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지금의 The Black Archives의 활동 방식과 유사하다. New Urban Cafe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수리남과 흑인</p>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서적을 비롯한 음반, 영상, 사물 등의 자료들이 점차 늘어났고, 수리남 협회(Vereniging Ons Suriname) 공간으로 2016년에 이전하면 The Black Archives가 지금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New Urban Collective의 가장 큰 목적은 네덜란드 내의 수리남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교육은 물론 사회가 제공하는 합당한 기회를 유색인종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있다. 네덜란드 사회에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식민 시대의 역사를 바로 잡는 일, 유색인종과 관련된 정책 제의에 참여하는 일,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일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수리남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문화와 역사, 인권 등을 위해 일하고 있다. 특히, New Urban Collective의 일원은 2011년 백인이 검은 분칠을 하고 산타클로스의 수하의 역할을 하는 '신터클라스'를 둘러싼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가 촉발한 대규모의 시위운동 등을 주도하고 참여하면서 네덜란드 사회가 눌러 왔던 식민의 역사와 인종주의에 대한 태도를 가시화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최근 암스테르담 박물관에서 식민시대가 시작된 17세기를 '황금시기'라 부르는 것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데에도 New Urban Collective가 관여했다.

New Urban Collective의 이러한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은 단연 The Black Archives이다. The Black Archives는 식민과 저항의 역사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작동하며 활동의 학문적 동기와 의미를 찾게 하며 또한 이를 전시나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식민의 역사와 네덜란드 사회 내의 인종주의를 가시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카이브는 크게 사회학자 Waldo Heilbron의 컬렉션, 흑인 최초로 미국 공산당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수리남 협회의 수장을 맡기도 했던 운동가 Otto Huiswoud와 그의 부인 Hermine Huiswoud의 활동을 살필 수 있는 Huiswoud 컬렉션, 100여년이 된 수리남 협회의 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이 아카이브는 여전히 정리 중에 있으며 연구자와 방문객들의 요청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며, 2주에 한번 씩 아카이브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아카이브를 이용한 전시를 기획하기도 한다. 또한, 2011년 이후 반인종주의 운동의 물결은 국공립기관의 활동에 있어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되면서 The Black Archives와의 협업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 국내에서도 기관 내 아카이브를 다루는 부서와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아카이브를 중심으로한 지식 생산과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The Black Archives는 네덜란드 내에서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무이한 아카이브 공간으로서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요한 공간이다. 노예 제도 및 식민역사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아키비스트를 대상으로한 펠로우십을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아카이브의 디지털 작업을 진행 중임으로, 전문 아키비스트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내년에 준비중인 수리남 협회 100주년 기념 전시 및 뮤지션 커미션 작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자/큐레이터를 선발하여 파견하는 방안을 타진해 볼 수도 있겠다.

[참고문헌]

<http://www.theblackarchives.nl>

http://voetnoot.org/research/ https://www.amsterdammuseum.nl/en/amsterdam-museum-stop-using-term-'golden-age'
--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유형	비영리기관	장르	시각예술
	운영주체	Casco Art Institute		
	소재지	위트레흐트 Lange Nieuwstraat 7, Utrecht	설립연도	1990
	기관현황	도서관을 겸한 사무실 갤러리(65m ²)와 네 개의 전시공간(200m ²)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렉터, 큐레이터, 프로듀서, 인턴 등 6명 내외의 작은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casco.art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최빛나 Binna Choi (디렉터)	연락처/이메일	binnachoi@cascoproject.org
	<p>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위치한 카스코는 1990년 작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간으로서 동시대예술의 실험적, 비판적 담론 생성을 지향한다.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는 카스코의 역사는 기관명의 변화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Stichting Casco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카스코는 1996년에 디렉터를 기용하면서 작가들이 운영하던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한다. 다학제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담론 중심의 살롱과 Issues라는 독립 출판물을 발행하는 등 이 시기의 카스코는 Project Casco라고 불렸다. 2003년 Casco, Office for Art, Design and Theory라는 이름으로 기관명을 다시 개칭하면서 사회적 맥락을 읽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디자인 활동에 주목하면서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을 만들고자 했다. 2018년부터는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라는 이름 아래 커먼즈(commmons), 공동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조직들과 협력하며 커먼즈를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의 변화 속에서 카스코가 기관으로서 고수한 것이 있다면 실험과 지식 생산을 중심으로 기존 전시의 틀을 벗어난 다층적이며 다학제적인 공동 연구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는 것이다.</p> <p>카스코의 활동은 크게 일 년에 2회씩 개최되는 전시 프로그램, 예술과 커먼즈를 중심으로 설계된 8 개의 '스터디 라인'이 교차하면서 연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동의 학교(School in Common)'와 일 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집회(Assembly)'가 있다.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집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천가들이 모여 기관의 조건과 예술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예술 기관의 공동화를 실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천을 구체화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과정과 결과로서의 전시가 이뤄지게 된다.</p> <p>또한 카스코의 활동은 대체로 큰 주제 안에서 다년간에 걸친 워크숍, 이벤트, 출판, 전시, 집회, 스터디 모임 등과 같은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논의하는 방식을</p>			

취한다. 커먼즈의 논의가 시작된 것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만 3년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 <Composing the Commons>에서 기인한다. 커먼즈를 질문하는 일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작가, 철학자, 이론가, 실천가 등이 이끄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거쳐 전시 <We are the Time Machines: Time and Tools for Commoning>(2015-16)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예술 기관에서 예술 실천을 통해 단지 공동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커먼즈를 위한 지식을 구현하고 실천하고자 시도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함께 이해하기 위한 대화와 활동 등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나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공동의식을 가지며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직접적으로 특정 이슈를 내세우지 않고 (물론 개별 작가들의 작업과 이벤트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대신에) 공동을 이야기하는 이 프로젝트는 역으로 네덜란드 사회 나아가 전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정치적으로 우익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정치적 풍토를 공동이라는, 함께 한다는 의식을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재고함으로써 삶과 기관의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변화를 위한 일상의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데서 카스코가 예술 기관으로서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카스코의 프로그램은 비단 프로그램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고 조직하는데 방식에서도 적용된다. 매주 수요일에 모여 함께 청소를 하거나, 매일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등 의식적인 결정으로서 커먼즈를 방해하는 자본주의와 생산성에 대해 저항하며, 노동을 재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커먼즈를 실천하고자 한다.

카스코는 또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한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Arts Collaboratory(artcollaboratory.com)에 합류하여 25개 이상의 예술 공간들과 초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연구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카스코는 매우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운영되는 초국가적인 기관이다. KOFICE에서 사회적인 예술에 관심이 많은 기획자를 희망하는 학생 혹은 졸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카스코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유라시아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내용적으로 국내 기관 및 연구자, 큐레이터와의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인다.

[참고자료]

<https://www.casco.art>

<http://www.artscollaboratory.org>

<https://www.common.art/>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BAK(Basis voor Actuele Kunst 박, 바시스 포르악틸러 쿤스트)		
	유형	비영리기관	장르	시각예술
	운영주체	BAK(Basis voor Actuele Kunst 박, 바시스 포르악틸러 쿤스트)		
	소재지	위트레흐트	설립연도	2000

	Pauwstraat 13a, Utrecht		
기관현황	예술감독을 비롯하여 약 십 여명의 팀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다양한 파트너, 특히 매년 선발하는 펠로우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bakonline.org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Irene Calabuch Miron	연락처/이메일	irene@bakonline.org
<p>BAK(Basis voor Actuele Kunst 박, 바시스 포르악틸러 쿤스트)은 카스코와 함께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위치한 시각예술플랫폼이다. 2000년에 개관한 이 공간은 국제적인 미술 플랫폼 부재에 대한 지역 사회(위트레흐트 시정부와 지역 예술가)의 요청에 의해 등장했다. BAK은 예술, 이론, 정치를 주축으로 현실의 복잡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과 적극적으로 공명하며 예술이라는 시각언어를 통해 현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비판하고, 나아가 대안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내어놓고자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유지 및 지속하기 위하여 BAK은 다양한 객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며, 따라서 개방과 환대, 유연성, 움직임, 겸손함, 지속성과 같은 가치를 기관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p> <p>BAK은 따라서 당대의 사회 및 정치적 이슈를 예술과 연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론 생산에 주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대체로 긴 시간과 다양한 주체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활동의 결과물은 단순히 전시에 제한하지 않는다. 한 주제의 프로젝트가 보통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영회, 담화, 강연, 토론, 세미나, 워크숍, 퍼포먼스, 전시 및 출판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와 발화가 생성되고 기록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냉전 이후 유럽의 역사와 예술의 현상을 다각도로 동시대 미술의 언어, 사유, 시선으로 모색했던 <포머 웨스트(Former West)>(2008-2016)가 있다. 최근 진행 중인 전시 <Training for Not-Yet>(2019)은 2017년부터 진행 중인 <Propositions for Non-Fascist Living>(2017-2020)의 일환으로서 전시를 일종의 다양한 활동의 플랫폼으로 삼아 다양한 모임과 관객과의 조우, 이를 통한 지식과 인식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이다. <Propositions for Non-Fascist Living>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사유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파시즘과 최근 유럽 사회에서 난민, 인종, 젠더, 계급 사이의 반목으로 빚어지는 복잡다단한 이슈들을 다시 성찰할 것을 주장한다. 기존의 규범을 답습하는 우리의 게으른 인식과 태도를 벗어나 달리 함께 일 수 밖에 없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타인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며, 인식적, 실천적 제안을 다양한 형식으로 프로젝트 안에서 펼쳐낸다. 실제로 현재 전시장에서는 플랫폼과 몇몇 작품이 설치되어 있을 뿐, 매주 트레이닝 활동이 펼쳐진다. 함께 음식을 만들거나, 책을 읽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의 활동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차이를 다각도로 체험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 BAK에서 진행 중인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중요한 꼭지를 맡아 이끌어 가고 있다.</p> <p>BAK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매해 6-1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p>			

10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BAK의 활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BAK의 기획 프로그램과 교차하며 실천을 통해 연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펠로우들은 6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펠로우 집중 활동(Fellows Intensive)에 참여하며, 리딩 그룹, 스터디 그룹 및 외부 전문가와의 미팅 등의 활동을 한다. 실제로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같은 시기에 시작된 <Propositions for Non-Fascist Living>의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펠로우들의 활동으로 이뤄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라익스아카데미와 협력하여 한국인 작가를 지원하듯, KOFICE는 BAK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의 사회, 정치적인 역할에 관심이 많은 국내 연구자, 작가, 기획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드 아펠의 리서치 펠로우 역시도 네덜란드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만남, 개별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재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거나, 지원 기관인 드 아펠과의 활동 접점이나 반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드 아펠은 리서치의 매개자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는 한편, BAK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기관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펠로우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리서치와 실천이 병행 가능한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BAK과의 교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www.bakonline.org
formerwest.org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Framer Framed		
	유형	비영리기관	장르	시각예술
	운영주체	Framer Framed		
	소재지	Oranje-Vrijstaatkade 71 1093 KS Amsterdam The Netherlands	설립연도	2010
	기관현황	여타 네덜란드의 기관과 같이 디렉터와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할 점은 홍보 마케팅, 전시, 교육 코디네이터는 존재하지만 기관 내의 큐레이터는 없다. 즉, 매 전시마다 해당 지역의 전문 큐레이터를 섭외하여 전시를 만든다.		
	홈페이지	https://framerframed.nl/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Cas Bool (디렉터)	연락처/이메일	cas@framerframed.nl

Framer Framed는 2008년경 활동을 도모하기 시작해서, 유트레히트에서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으나, 공식적으로 활동을 펼친 것은 2010년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아 문화계도 예외 없이 이전에 없던 감축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대다수의 기관이 재정난으로 활동을 축소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문을 닫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반응하듯 Framer Framed는 실질적인 공간을 갖추진 않았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으로서 여러 기관과 연대하며 담화와 토의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활동에 집중했다. 이 기관의 창립자 중 한명인 Josien Pieterse가 당시 유트레히트의 Tumult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곳은 당시 유트레히트의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의 큐레이터들이 대화를 촉진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이 기관에 접근하여 많은 논의들을 생산해 냈다. 이러한 Tumult의 역할과 작동 방식은 초기 Framer Framed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당시 Framer Framed에서는 주로 네덜란드 제도 기관이 식민의 역사와 식민성에 대한 논의가 다루졌는데, 이는 타 유럽지역에 비해 이러한 논의가 후퇴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Framer Framed의 첫 챕터는 근대에서 기인한 기존 제도기관의 제도적 구조를 해체하고 질문함으로써 제도 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 움직이는 플랫폼으로서 작동했던 Framer Framed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간을 갖추고 전시 만들기에 주력한다. 암스테르담 북쪽에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에 초점을 맞춘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기관의 구조를 살펴보면 내부의 큐레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즉, 매번 전시를 만들 때마다 해당 지역에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전시를 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콜롬비아(<HERE/NOW - Current Visions from Colombia>, 2019) 동남아시아(<UnAuthorised Medium>, 2018), 남아프리카 공화국(<Re(as)sisting Narratives in South Africa>, 2016)과 같은 특정 지역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 전시들이 기획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 서사에 천착한 전시 외에도,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염두해 둔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최근 9월에 북쪽에서 다시 암스테르담의 동쪽으로 위치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열었다.

위에 몇 가지 예시로 든 전시를 볼 때, 네덜란드 내에서 Framer Framed의 기관 정체성은 굉장히 뚜렷하다. 근대 미술관이 근대미술의 서사를 주도하고 서술하는 방식에 대한 대항으로서 Framer Framed는 다중 서사의 가능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그런 한 방식으로서 '타'지역에 집중한다. 한편 이들의 의도와 달리 특정 지역 서사에 초점을 맞춘 전시는 다시 그들이 벗어나고자 했던 식민 역사를 타자화했던 과거 기존 미술/박물관들의 방식과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는지 질문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이론이나 문화정체성 등에 관심있는 리서처가 이 기관이 갖는 명암과 같은 정체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자체로 네덜란드에서 제도 기관이 어떻게 글로벌리즘과 인터네셔널리즘, 다문화주의와 같은 담론을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살피는데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을 타진한다 하여도, 이 기관의 다중서사의 접근법 자체를 비평적으로 바라볼 때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p>framerframed.nl</p> <p>Cas Bool and Josien Petrse, 'Framer Framed: The Museum in Transition' in Changing Perspectives: Dealing with Globalisation in the Persentation and Collection of Contemporary Art, Amsterdam: KIT Publishers, 2012, pp. 112-120.</p>
--------	--

기관/단체명	Van Abbemuseum		
유형	비영리기관	장르	시각예술
운영주체	Van Abbemuseum		
소재지	Bilderdijkaan 10 5611 NH Eindhoven	설립연도	1936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vanabbemuseum.nl/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Charles Esche (디렉터)	연락처/이메일	charles.esche@vanabbe.nl

기관 및 단체

반아베미술관은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클레어 비숍의 <래디컬 뮤지올로지(Radical Museology)>의 주요한 케이스 스터디로 언급된 바 있으며, 현대미술관의 역할과 그 실천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한 기관 중 하나이다. 1936년 아인트호벤의 지역 미술관으로서 네덜란드 현대 미술을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문을 연 반아베미술관은 근·현대 미술관으로서 유럽 내에 설립된 최초의 공공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네, 피카소 등 근대미술의 대가들의 작품부터 요나스 스탈(Jonas Staal)과 같은 젊은 네덜란드 작가의 현대미술 작품까지 근현대를 망라하는 3,000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의 반아베미술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근대를 해체하기demodernisation'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키워드는 2004년 영국 출신의 큐레이터 찰스 에셔(Charles Escher)가 미술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등장했다. 찰스 에셔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서유럽에서 획일화된 미술제도와 기관에 비평적인 입장을 취하는 큐레이터들에 의해 형성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대표적인 큐레이터로서 '근대를 해체하기'는 큐레이터로서의 그의 신념과 그가 이끄는 기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준다. '근대를 해체하기'는 '퀴어링queering'과 '포용하기inclusion'와 같은 개념과 함께 특히 소장품을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주요한 방법이 된다.

소장품을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래디컬 뮤지올로지>에도 등장하는 <플레이 반 아베(Play Van Abbe: The Museum in the 21st century)>(2009-2011)와 최근까지 개최되었던 <근대 미술 만들기(The Making of Modern Art)>(2017-2019)가 있다. 전자는 미술관 소장품의 의미를 되짚는 전시로서 반아베미술관 큐레이터 뿐만 아니라 게스트 큐레이터, 연구자, 작가 등을 초대하여 소장품을 토대로 가능한 다양한 서사와 서술의 양식을 보여준다. 이로써 미술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품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미술관의 유동성과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의미 등을 다양한 형식의 실천을 통해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정전으로 여겨지는 서구 중심의 근대미술의 역사 서술을 해체하고자 하는 후자의 전시는 반아베미술관의 소장품과 타유럽국가의 소장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서구 근대미술의 역사가 서술되어 왔는지를 굉장히 비평적이며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서술해 간다. 또한, 이 전시에서 특이할 점은 정전의 기술에 있어 변곡점이 되었던 6개의 전시와 정전의 서술 밖에 존재했던 다른 근대의 서술을 살필 수 있는 두 개의 전시를 같은 공간에 전시를 함으로써 다양한 서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반아베미술관의 활동은 기존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 미술관의 역할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고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주요한 케이스 스터디로서 그 가치가 있다.

국제 교류의 차원에서 살필 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풍요로운 소장품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국내 기관과 연결하여 타진해 볼 수 있다. 또한 반아베미술관이 자랑하는 아카이브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류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일방향이 아닌 어떻게 양방향으로 지식을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vanabbemuseum.nl

https://artreview.com/features/summer_2016_feature_charles_esche_on_euro_crisis/

<http://moussmagazine.it/making-modern-art-way-beyond-art-van-abbemuseum-eindhoven-2017/>